

코리아메드의 문제점

허선(정보관리위원회 간사)

역사

- 1996년 2월: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발족(회장 박찬규)
- 1997년 3월: 코리아메드 운영하기로 함. 미국국립의학도서관의 퍼브메드의 한국판 개념
- 1997년 12월: 코리아메드 5,000 편의 영문 초록으로 첫 선. 기술 운영은 이원정보통신. 그 후 총 3 만편 제공
- 1998년 12월: 이원정보통신에서 프로그래머 퇴사. 코리아메드 운영 부실.
- 1999년 2월: 이원정보통신에서 관리하던 서버를 인포메드사에 넘겨서 3 개월간 서비스제공.
- 1999년 3 월: 제 2 대 집행부 구성(회장 함창곡)
- 1999년 5 월: 인포메드사에서 서버 해킹당하여 서비스 중단
- 1999년 6 월: 코리아메드 운영 공모- 한국학술정보에서 서비스 제공 요청하여 계약함.
- 2000년 5 월: 제공 논문편수 5 만편. 문제는 제공하는 정보의 일관성이 없음. 즉, 데이터베이스 검색 엔진의 기능이 퍼브메드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입력정보가 정확치 않음.
- 2001년 1 월: 한국학술정보와 협의 과정에서 기능상의 문제점을 지적. 한국학술정보 경비 요청. 2 억 이상 소요 제기.
- 2001 년 2월: 한국학술정보에서 계속 서비스할 능력이 없다고 통고하고 계약 해지.
- 2001 년 2월 20일 현재: <http://koreamed.kams.or.kr> 에서 일부 정보 다시 제공. 현재 과거 정보 변환하여 입력 중. 한국학술정보에서 자료 및 도메인 회수 중.

문제점

회사 쪽

- 1) 같이 작업하겠다고 하던 회사의 부실-- 이원정보통신. 기술력이 한 명의 프로그래머에 의존하므로 그 사람이 퇴사시 전혀 서비스 제공이 안됨
- 2) 참여 회사가 코리아메드에서 수익을 염두에 둬--수익 사업이 안됨을 알고 포기- 한국학술정보의 경우
- 3) 참여 회사의 프로그래밍 수준 미달- 한국학술정보의 경우 퍼브메드 수준의 검색 엔진 개발 능력 부족

편집인협의회 쪽

- 1) 상업회사의 사정을 파악하는 데 한계
- 2) 외부 수주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점
- 3) 자체로 서비스 제공할 풀그림의 결여
- 4) 학회 자료 수집의 어려움 - 정보위 위원이 전부 대학 교원이므로 코리아메드에 집중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일을 하기 어려움.

- 5) 작업 주체가 계속 바뀌어 학회에 혼란을 준 점- 협의회에서 일관성있게 하지 못함
- 6) 출범 3 년 2 개월이 지났는 데도, 국내외에 한국의 의학학술지 검색의 대표 창구 역할을 못함.

1.